

우리금융, 이웃사랑 성금 30억원 기탁

손태승 “지속적 나눔 활동 동참할 것”

우리금융그룹은 이웃돕기 성금 3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이웃사랑 성금 3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우리금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을 2017년 10억원, 2018년 20억원에 이어 2019년에는 30억원으로 늘리는 등 매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늘리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나눔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억을 기탁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한화그룹, 카이스트와 미래 과학 인재육성

한화그룹은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카이스트(KAIST)와 함께 겨울방학 캠프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역 중학생 5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진행됐다. 겨울 과학 캠프는 과학기술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과학영재 학생들을 발굴하고 우수 이공계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직접 과학체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에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논리적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학생들은 카이스트 학생들로 구성된 멘토들과 함께 교과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대학생 선배들에게 학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다.

2016년부터 진행된 ‘한화-KAIST 인재



한화그룹과 카이스트가 진행한 겨울 과학 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그룹

양성 프로그램’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술공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융합과학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CES서 빛난 韓 스타트업



기자 수첩

배한님
(산업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한국 스타트업이 대거 참가했다. CES를 주최한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CES 2020에 참석한 한국 스타트업은 179개사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였다. 12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유레카관 곳곳에 한국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뽐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CES 유레카파크에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을 좀 보태면 아는 분을 만나고 몇 십미터 걷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는 글을 남겼다. 매년 한국 CES에 참가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CES에 참가한 한국 스타트업은 매년 팔복상대할 만하다. 특히 올해는 팜테크 스타트업 ‘엔셀’은 IoT를 적용한 작물 재배 컨테이너 플랜트 큐브로 스마트시티 부문 최고 혁신상을 거머쥐며 전세계인의 이목을 끌

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교통트래픽레이더를 만드는 ‘비트센싱’도 24GHz 레이더 센서로 혁신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엑소시스템즈, 아이콘AI 등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발전하는 기술로 CES에 참가하는 스타트업도 많다.

SOS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층 더 진화된 ‘라이드’로 CES에 참석했다. SOS랩의 라이드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술로 자율주행차의 이미지센서로 활용된다.

한국 최대 스타트업 엑스포인 ‘ComeUp’에서 휘어지는 배터리로 주목받은 ‘리베스트’도 참석했다. 베어로보틱스, 휴이노, 뉴로핏, 피웬랩스, 포티투마루 등 많은 스타트업이 올해 라스베이거스장을 밝혔다. 이들이 아직 1년이나 남은 내년 CES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다.

오는 2021년 CES에는 좀 더 많은 스타트업이 성장해 CES에 참가해 기술력을 자랑하고 오길 바란다.

/ericabae1683@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2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을 받겠다. 48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 60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 7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노력하자. 84년생 성공은 모든 잡음을 없앤다.

소 37년생 하나를 투자하고 열을 얻는 날. 49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자. 61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73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85년생 진심으로 대하면 보답이 크다.

호랑이 38년생 날씨가 흐리니 외출을 삼가라. 50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려 온다. 62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4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86년생 자신의 약점은 공부로 극복하라.

토끼 39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준비. 51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63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나 근심을 추가한다. 75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87년생 결실이 적어도 후회는 없다.

뱀 40년생 나이 탓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재도전하자. 52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 64년생 실수 연발도 하루하루 인생이다. 76년생 고칠 곳을 발견하면 당장 고쳐라. 88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대어를 낚는다.

말 41년생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조바심이 난다. 53년생 정든 사람과 이별하는 수가 있다. 65년생 밖은 전쟁터이니 이직은 신중하게. 77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함을 명심. 8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행동을 조심.

말 42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4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66년생 농친 고기를 아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8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90년생 과속운전은 주의하자.

양 43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55년생 모두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67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79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91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원숭이 44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5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도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8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80년생 쥐띠가 찾아오니 귀인이다. 92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닭 45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57년생 고랑 치고 가재 잡는 날. 69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81년생 썩지 않으려면 고인 물은 흘려보내라. 93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찾라.

개 46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58년생 가슴이 답답한데 한잔 술이 위로를. 70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2년생 대결이 시작됐으니 최선을. 94년생 향기가 없어도 꽃이니까 아름답다.

돼지 4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59년생 누구나 외로운 것은 미친가지. 71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83년생 일이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95년생 신념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6		1	9		
9		4	5					
	5			6		7		4
	8						2	
7		6		3			9	
					6	4		3
		7	1		3			
1	8							

	2			6				4
3		6	7		4	1		2
4	5						9	3
7								8
				6		8		
6								1
2	6						1	9
5		3	9		6	8		4
	4			3				7

스도쿠 정답								
6	4	9	7	5	2	8	1	3
2	5	8	6	1	4	7	9	3
3	1	7	9	8	5	2	6	4
8	6	1	5	2	9	7	3	8
9	2	5	4	1	6	3	8	7
7	3	8	2	9	8	6	5	1
1	9	3	8	2	5	7	4	6
5	7	6	1	4	9	2	8	3
4	8	2	6	7	3	1	9	5
9	4	5	2	8	6	7	1	3
7	8	9	1	6	3	5	2	4
6	1	3	7	9	8	4	5	2
1	5	6	2	4	7	3	8	9
4	7	8	2	9	5	1	6	3
8	9	2	5	6	1	7	3	4
3	6	9	1	8	2	4	5	7
2	8	1	7	5	4	9	6	3
5	7	4	6	9	3	1	2	8

문제 제공= **보스**



김상희의 四季

너무 눈치가 빨라도

“곰 같은 마누라보다 여우 같은 아내가 낫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지혜일 때도 적지 않다. 조직사회에서는 눈치가 빠르게 상사의 뜻을 잘 헤아려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지름길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어제 언급한 계곡과 관련한 고사에 나오는 양수는 이러한 조조의 복심을 잘 읽어 주군의 뜻에 맞는 행동을 했음에도 오히려 죽음을 자초했다. 실제로 양수가 초나라와의 한중전투와 관련한 한 건으로만 죽임을 당했을까? 이미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조조의 마음을 읽어내었다. 앞서 행동하는 양수가 뛰어난 인재인 것은 알았으나 자신의 속마음을 계속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부담되었다.

한 번은 조조가 신하들에게 정원을 만들라고 했다. 정원이 다 만들어지자 조조는 대문에 활(活)만 쓰고 돌아갔다. 신하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당황할 때 양수는 말하길 “문(門)에 활(活)자를 썼으니 이는 넓다는 뜻의 활(濶)자가 아니겠소? 그러니 정원의 크기를 줄이라는 뜻이오”라고 했다.

이때만 해도 조조는 그놈 참 똑똑하다 했을 것이다. 그 후에 누군가 조조에게 낙(酪)이라는 술을 선물했는데 조조는 한 모금 마시고서는 병에 일합(一合)이라는 글자를 써 신하들에게 돌렸다. 신하들이 뜻을 몰라 멍하니 있자니 양수는 또 말하길, “일합(一合)을 풀면 일인일구(一人一口)이니 한 사람당 한 모금씩만 마시라는 뜻이겠지요.” 했다.

이렇게 조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곤 했는데 그 후 중원 퇴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속마음까지 읽어내자 조조는 불현듯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여기서 세상의 씩씩한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너무 앞서나가면 살(殺)이 많다는 것이다. 천재가 꽃이 피기도 전에 스러지는 이치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8호	